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늘성, 코로나 19를 뚫고 이 땅에 오다’

지난 2월 4일부터 13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대전 늘사랑교회 청년(20명)들이 이땅을 찾아 주었습니다. 이번 방문 간에 청년들과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노인센터를 방문하여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보낸 자리였지만 멀리 한국 교회에서 이곳 노인센터까지 찾아준 청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지역 신문에 실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줄지에 우리가 유명인사가 되었지요.

또한 현지 지역교회 유대인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다소 어색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기우(杞憂)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방문과 교제 더 나아가 이 땅과 이 민족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하는 그 때를 꿈꾸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갈릴리 내 극빈자들을 위한 센터(선한이웃)에서도, 지역교회의 요청에 따라 성경 운반하는 일에도 함께 했으며 민족의 경계를 넘어 베두윈 마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또 나눴습니다. 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베두윈 아이들에게 장갑과 양말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가는 곳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해서 더 힘이나고 또 그들로 인해 매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 한 사람 한사람 모두가 이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였습니다.



노인센터 문화사역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각종 공연을 통하여 한국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던 자리였습니다.



‘벤 예후다’ 거리 찬양

마지막 날이라 그냥 설법도 한데, 청년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 다시 거리에 나가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한 이웃’ 봉사활동

먼지 속에서도 싫은 표정 하나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청년들의 모습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위에서 언급한 늘사랑교회 청년들의 이스라엘 방문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린 것은 바로 저희 가정입니다. 청년들은 연 이틀간 저희 집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아이들을 이모양 저모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온 젊은 삼촌 이모들 만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아이들은 무척이나 행복해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청년들이 떠난 후 저와 가족들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뇌며 그리워합니다. 올해로 10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 떠나 보내는 일이 익숙치 않고, 떠나 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한동안 여운으로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지만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우려는 큰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현지인들이 저희들을 자꾸 중국사람 아니냐며 피합니다. 마트에 가도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제야 경계를 풁니다. 이런 일상에서 겪는 오해와 불편함이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가급적이면 가족들의 바깥 외출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사역 이후 곧 이어 잡혀있었던 2건의 해외 모임 역시 이러한 이유로 하나는 취소가 되었고 또 하나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늘사랑 청년 사역을 위해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기도제목 」

1. 히베니(동원사역)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2. 노인 돌봄 주간센터 사역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3. 유대인 교회인 '생수의 강 공동체' 청년들과 늘사랑교회 청년간의 나눔과 교제가 이어지도록
4. 아이들 홈스쿨과 관련하여 언어(영어, 히브리어) 수업을 담당해줄 예비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5. 가족의 건강과 연약해진 몸(비염, 두통)의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Motto :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운)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

